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19. / (총 1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동 빈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헌 강 준 혁		044-202-3810 044-202-3811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정 진 숙		02-213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혜 경 김 혜 정		032-440-5017 032-440-2786
대전광역시 위생안전과	과 장 담 당 자	원 방 연 김 혜 경		042-270-4860 042-270-4900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백 현 옥 조 원 태		041-635-2640 041-635-3104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 장 담 당 자	이 진 철 남 승 헌		044-201-4016 044-201-4021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	팀 장 담 당 자	한 상 균 김 병 도		044-202-3232 044-202-3239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과 장 담 당 자	조 경 원 남 정 근		042-481-4573 042-481-3963
소방청 운영지원과	과 장 담 당 자	윤 상 기 남 승 준		044-205-7030 044-205-70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중인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이 미준수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체육행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3.4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종교시설·방문판매 설명회·각종 소모임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일일신규 확진환자 : (5.21~6.3) 34.3명 → (6.4~6.17) 43.4명

-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 위주로 주요 발생 연령층이 이동하였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2% → 6월 2주 55% (약 5배 증가)

- 또한 최근 1주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충청권 지역사회 전파(6.15~6.18) : 2명→ 3명→ 6명→ 10명

-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소규모 종교시설(619개소) 및 방문판매업소 등 특수판매업소(7,334개소)를 점검하였다. 또한 요양병원(124개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1,024개소) 등 노년층 밀집 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행정지도 하였다.

-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소규모 종교시설(1,540개소)에 집합제한(6.2~별도해제시), 홍보관 형태의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발령(6.11~별도해제시) 중에 있으며, 요양원 등 노인 밀집시설에 대해 입소자·종사자 방역조치, 책임전담제 지정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종교시설(2,442개소) 현장점검, 특수판매업(807개소) 집합금지명령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요양병원(51개) 환자, 종사자, 간병인 진단검사 및 요양원(88개) 점검, 소독 등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 개척교회·기도원(2,578개소),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거래업체(75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하였으며, 요양원 등 노인 다수 이용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요양기관·장애인 시설 종사자(11만7,770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 * 코호트 격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파견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소규모 종교시설(교회)에 대해 활동자제 협조요청, 방문판매업소(86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집합금지 등 행정조치하였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2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물류시설 4,300여 개에 대해 전수점검(6.1~6.11)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관세청·식약처 6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①시설물 관리자의 자체점검, ②지방자치단체 관내 물류시설 점검, ③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의 주요 물류시설 점검 등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 각 부처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국토교통부는 택배시설, 산업부는 유통시설, 해수부는 항만물류시설, 식약처는 식품 냉동·냉장창고, 관세청은 수출입 창고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취약 시설을 파악하여 점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에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었다.

- 점검 결과, 지난 쿠팡·마켓컬리 점검(5.29~30)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응과 물류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마스크 착용·출입관리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 여전히 작업자 간 거리 두기, 현장 특화 방역지침 마련, 장비 소독, 출입관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에서 방역관리 미흡사항은 총 3,647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632건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고 나머지 미흡사항은 향후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정부는 물류센터 본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식당 칸막이 등 시설 보강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물품 지급 및 방역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작업자들 스스로가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자·지방자치단체·부처 상시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반복적으로 미흡사항이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특성을 고려한 방역계획 수립과 취약시간·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물류업체와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의 범정부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3 전자출입명부 추진현황 및 보완방안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 전자출입명부는 본사업 개시(6.10) 이후 전국 약 6만 개소가 도입하여, 총 141만 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6.18 18:00기준)
 - * 하루 평균 신규 도입시설은 약 5천여 개소, 이용자 수는 약 18만건(6.11.~)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 우선, 네이버 외에 PASS*(패스, 6.24.~)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 또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상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대장*을 병행하여 작성하던 것을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별도 수기 대장은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해외여행력 및 체온 등,

** 예외적으로 본인 거부,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만 수기명부 작성

- 아울러 제도 안내, 사용 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전자출입명부 내용 전반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하여 시설관리자 등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이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이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고시원·쪽방촌 방역지침 준수요청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시원·쪽방촌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고시원·쪽방촌은 좁은 공간에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시원·쪽방촌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단체식사 지양 등 밀접한 생활 공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방역지침 주요내용 >

- ◆ (쪽방촌) ①쪽방촌 내 이동 자제하기, ②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③마스크 착용(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안되는 경우, 공용 공간 이용시, 외부인 방문시), ④단체식사 지양(단, 다수가 식사해야 하는 경우 한 방향으로 식사), ⑤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주기적 소독 등
- ◆ (고시원) ①고시원 내 이동 자제하기, ②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③마스크 착용(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안되는 경우, 공용 공간 이용시, 외부인 방문시), ④이용자 외 방문 제한, ⑤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주기적 소독, ⑥관리책임자 지정하여 방역지침 준수 안내 등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시원·쪽방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방역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서 6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비대면 특별행사, 6개 지역별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다만, 최근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과 수도권 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방역관리를 강화한 현장 판촉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현장행사 개최 예정인 서울, 부산, 대구, 전북(전주), 충북(청주), 경남(창원) 등 6개 지역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당 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행사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방역대응반을 구성하여,
 - 행사장별 방역요원을 10명 이상 배치하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안내 및 동선을 관리하는 등 매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 손 소독제 비치, 대면접촉이 많은 푸드코트, 테이블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실내 행사장 환기, 소독과 환경청소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출입자 명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밀집도 관리를 위해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고 및 조치하는 등 행사 전반에 걸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행사인 만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6월 20일 실시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방역관리대책에 대해 보고하였다.
- 이번 시험은 전국 119개 시험장, 2,659개 시험실에서 실시되며 5만 2,459명(채용인원 4,83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 소방청은 대규모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는 만큼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해야한다. 이때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 5인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9인까지 수용

- 응시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응시자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19일 18시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로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응시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 *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는 곳은 각 실별 1인 입실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수험생간 5m 이상 거리 유지 및 파티션 등 임시 차단막 설치
- 소방청은 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7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서비스 1,066개소, ▲공중화장실 24,6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70,15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방문판매 방역수칙 미준수 등 1,02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특히 충남에서는 방문판매업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방문서비스 업체 122개소를 점검하여 2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95개소를 점검하여 위생상태 불량, 안내문 미부착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0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3개반, 6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712개소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실시 등 1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6,49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0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189명이다.
- 2,56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5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9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18)는 약국방문, 휴대전화 대리점 방문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1건, 법무부 통보 1건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36명이며, 이 중 11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7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8일) 입소 182명, 퇴소 16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15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